



농촌공사 영암지사, '2025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' 실시

-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연재난 극복 -

김유인 | 기사입력 : 2025/05/27 [18:20:00]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전지영 영암지사장(사진 우측)이 비상대처훈련 참가자들에게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.

[영암군민일보/김유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(본부장 김재식) 영암지사(지사장 전지영)는 5월 27일 영암군.읍 회문리 소재 대동저수지에서 2025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남도, 영암군, 영암경찰서, 영암소방서119센터, 영암보건소 등 유관기관 및 대동저수지 인근 주민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,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, 지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수지 붕괴와 같은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훈련을 실시했다.

전지영 지사장은 "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재난 대응체계로는 더 이상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없다"며, "이번 훈련처럼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, 재해

대비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과 농어민들에 대한 교육·홍보를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▲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제방유실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.

영암군민일보 이 기사 주소 : <http://www.xn--6e0bx9yjva78vyyac9d.kr/5003>
